

48

의심 많은 도마

요 20:24~31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찬양 162장 (들어 보겠니)



1. 믿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분명한 사실인 말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압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
 여 가로되 나의 시며 나의 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 20:27~29)



을 이해하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며 한 목소리로 힘있게 증거하였지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확실한 증언을 듣고도 의심할 뿐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그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주님께서서는 그 도마 역시 사랑하셨기에 8일 후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믿는 자가 받을 축복과 믿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도마가 자신의 상처를 직접 만져 보고라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대신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벧전 1:8~9)

whom having not seen you love. Though now you do not see Him, yet believing, you rejoice with joy inexpressible and full of glory, receiving the end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 (1 Pt 1:8~9)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수님은 도마에게 어떻게 행하셨나요 (요 20:24~27)?
- ②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써 봅시다(벧전 1:8~9, 히 11:1).

3

우리 자신들도 구원에 대하여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경험과 해결 과정을 적어 봅시다.

보기

- ① 자신의 마음을 믿기 때문에 (잠 28:26)
- ② 구원을 받으면 마음이 화끈거리거나 눈물을 흘려야 하는 등의 신체적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벧전 1:23~25)
- ③ 구원을 받고서도 행동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롬 7:18~24)
- ④ 신앙생활을 잘 해야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엡 2:8~9)
- ⑤ 신앙생활 중에 자신의 공로만 크게 생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은 뒷전에 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전 1:8, 빌 1:6)
- ⑥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롬 11:29)
- ⑦ 의심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 28:16~17)
- ⑧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요일 1:8~10)
- ⑨ 유혹과 시험, 사단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 16:33, 요일 5:4)

4

구원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조언을 해 준다면 어떻게 말할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잠 12:15

의

잠 28:26

화

눅 6:47

↑

눅 6:48

↓

롬 11:29

↓

고전 1:21

↓

고후 10:12



의심없는 믿음

벌써 10년도 넘었지만, 전에 기르던 개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진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인 나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녀석은 밥 먹을 때 제 밥그릇을 갑자기 빼앗아도 전혀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주인도 무는 것이 개의 습성이라지만, 그 녀석은 마치 '내 주인이 뭐가 맛있는 것을 더 주려는가 보다'하는 표정으로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것처럼 진지한 기대는 나로 하여금 진짜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남의 집에 세들어 살았기 때문에 몸집이 제법 커진 후에는 시골의 과수원으로 보내야 했고 나는 학교생활에 분주하여 거의 잊고 있었는데 1년 반쯤 지난 여름방학에 시골에 놀러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수원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짙게 깔린 후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m 이상 되는 거리에서 하얀 물체가 쏜살같이 달려와 나를 향해 뛰어 올랐습니다. 얼떨결에 안고보니 그 녀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게다가 깜깜한 중에도 자기를 먹이던 주인을 알아보고 달려들어 반가워서 꼬리치는 그 모습은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개를 생각해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찮은 개가 그 주인이 밥그릇을 빼앗았을 때에도 기대했는데,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나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는 의심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있어요~



전생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전생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생에 관한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많습니다. 혹시 맞았다면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목소리나 기타 다른 것을 흉내 내기도 합니다. 또는 과거에 어느 특정 인물 속에서 그를 주관했던 귀신이 그때의 기억과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믿을 것이 못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욘 19:26)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 3:21)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 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고 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 11:14)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전생은 엘리야였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눅 1:17)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구약시대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세례 요한이냐는 의미로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단은 그럴듯한 미혹거리들을 많이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마 24:24).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두어서 사단이 만들어내는 미혹거리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